

# 도, 오피니언리더와 국제협력 방안 논의

김관영 도지사, 캐나다·벨기에·폴란드 등 6개국 스카우트 대표단장과 면담... 다양한 분야 국제교류·전북홍보대사 등 협력 방안 모색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캐나다, 벨기에, 폴란드, 칠레, 대만, 말레이시아 등 6개국 외국인 스카우트 리더들과 8월 1일부터 3일간 전북을 돌며 다양한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에서 개최될 2023 세계잼버리 행사를 사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160여 개국의 대표단장 중 전북의 국제교류 확대 대상국인 캐나다와 폴란드 및 대륙별 주요 거점 국가 관계자들을 초

청하며 마련됐다. 6개국 16명의 스카우트 리더들은 농업, 영화, 언론, 스포츠, IT 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로서 전북의 산업, 문화, 관광과, 자국 내 전북과 유사하거나 또는 상호 교류 시 도움이 될 지역을 추천하는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더하여 전북이 지닌 매력적인 자원을 해외에도 알릴 수 있도록 지역을 해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와 같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는 전북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행사 전후로도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북의 국내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국제교류 협력 사업 또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문자 대부분은 전북을 처음 방문하는 것으로 2박 3일 기간 동안 전주, 완주, 순창, 진안 등 여러 시군을 방문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의 문화와 관광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방문자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잼버리, 청소년, 문화, 음식 등의 분야에서 전북 또는 관련 시군과의 국제 교류 매칭 등의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 여름에 걷기 좋은 '길명' 명소

전북도, 가장 호감도 많은 전북 천리길 13개 노선 안내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 발굴 계획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여름철 관광객이 시원하게 힐링하며 걷기 좋은 전북천리길 13개 노선을 발표했다. 전북 천리길은 2017년부터 우수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연계하고 건강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조성되었고, 현재 44개 노선 405km의 길이 개통됐다. 이중 여름철 탐방객 블로그(SNS) 후기에서 호감도가 가장 높은 노선을 선별하여 13개 노선을 발표했다. 해당 노선은 (군산) 구술평길, 물빛길 (정읍) 대장금마실길 (남원) 구룡폭포순환길 (김제) 금구

명품길 (진안) 용담댐 감동버섯길 (무주) 금강변마실길 1코스 (장수) 방화동 생태길 (순창) 강천산길 (고창) 운곡습지 생태길 1·2코스 (부안) 적벽강 노을길, 해남이 숲길 등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이다.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장은 "많은 분들이 일상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전북 천리길에서 힐링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 전북 천리길을 연계한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 등 다양한 생태관광 자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도, 태풍·집중호우 관련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

입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장·상습침수현장 방문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최근 국지성 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입실군 재해위험지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입실읍을 방문해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사업현장 및 침수지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사업 추진상황 및 침수피해 인원을 점검했다. 해당 지역은 입실천 중류 좌·우안이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의수위 상승에 따른 배수역함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불량하여 상습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2010년과 2011년에도 피해를 입은 곳이다.

이에 입실군은 항구적인 재해위험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절감과 재해예방 효과가 극대화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해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됐다. 입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36,900백만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관로정비, 펌프장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내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계약 상태이다. 또한 입실역 앞 도로 침수지역은 하천수위 상승으로 내수배제가 안 되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주택 및



인근 농경지가 상습 침수된 지역으로 피해원인을 파악하여 항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위험 지역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재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일제 지도점검 추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도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105개소에 대하여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내실 있는 운영 도모를 위해 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도점검 차원에서 실시한다. 또한 지자체 지도점검 결과는 향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제

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 사업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점검사항으로는 도는 시군별 수행기관 공모 및 심사 관련 자료 확인 후 적정성을 검토하며, 시군은 수행기관별 현장 방문하여 참여자 모집 방법, 선정기준, 사업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관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활용 적정성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김경수 기자

## 도내 14개 시군체육회장 간담회

도민체전·체육영재발굴선발대회·전국체전 등 논의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2일 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내 시·군체육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하반기에 예정된 대회는 물론, 굵직한 대회에 대한 설명 및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하기위해 마련됐다. 먼저 다음달 2일부터 사흘간 남원시 일원에서 펼쳐지는 제99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도민체전은 코로나19로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만큼 도민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민체전 추진

상황 및 개·폐회식 등 공식(공개) 행사 연출(안)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또한 전북체육회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체육 영재 발굴 선발대회도 논의됐다. 지난해 전북체육회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이 대회는 올해 2회 대회로,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실군 일원에서 열린다. 이밖에도 오는 10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대비 하계 강화훈련 현황과 12월 치러지는 시·군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정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민체전, 체육영재발굴선발대회, 전국체



전 등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고 체육을 통해 하나되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 돼 있다"면서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군 체육회장님들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모든 대회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응치전적지 현장 행정

전선미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일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응치전적지를 찾았다. 전선미 국장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에 이르는 전라북도 기념물 응치전적지를 방문해 국가사적 지정 신청건과 관련, 주요 현황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는 전라북도과 진안군·완주군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응치전적지는 1592년 임진왜란 초기에 전주와 진안군의 경계가 되는 응치 일원에서 전주로 침공하려는 일본군과 전라도 관군·의병 사이에 벌어진 전투이다. 전라북도과 진안군·완주군은 지난해 9월 응치전적지를 국가사적으로 지정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해 지난 2월 김현모 전 문화재청장 방문에 이어 5월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가 현장찰을 찾으며 사적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 7월 열린 문화재청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지정을 보류했다. 위원회는 전부 장소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과 진안군·완주군은 추후 전적지 조성 및 역사적 자료 등을 보강해 국가사적 지정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김경수 기자·진안=우태만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2학기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긴장해소·면접스피치·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대인문학부장
- 한국스피치·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체육회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1TV 아침나눔, MBC 1TV, 11TV, 11BN 출연 및 강연자
- 스포츠 사면네스트 · 송정로수사 · 심리상담사
- 계시 "665 스승의날을 기억하라", "나쁜 배운, 배운, 배"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8월 29일까지
- 개강: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15만원
- 분의: 010-8448-2570
- 전담교수: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안지능이회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